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부활 후 제8주일
성령 강림 주일 | 오순절
성 오누프리오스 수도자
조과 부활복음 9 (요한 20,19~31)

성 요한 크리스스툼 성찬예배

- 제 2 응송 ----- 265
- 오순절 찬양송 ----- 265
- 오순절 입당송 ----- 265
- 오순절 시기송 ----- 265
- 삼성송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 85
- 사도경 : 사행 2,1~11 ---- 265
- 복음경 : 요한 7,37~52; 8,12-- 106
- 오순절 영성체성혈송 ---- 266
- '우리가 참빛' 대신 '오순절 찬양송'

* 성령 강림 의식

성찬예배 다음에(오순절 예식서 88)

오시옵소서, 성령이시여!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날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넘으신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지 오십일만에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십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사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법과 진리 속에서 살게 하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절 이후 각종 예배에서 주로 주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기도를 올리다가 오순절부터는 다시 "하늘의 임금이시여, 위로자시여..."로 시작하는 성령 기도를 올리며 강림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사랑과 현존 그리고 역사하심 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없으며 구원될 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강림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 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다.”(요한 14,16~1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신 후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의 약속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확인해주셨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루가 24,49)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십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또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사도행전 1,4~5)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십일만에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활하신 후 오십일이 되어 사도들이 모두 모여 있는 가운데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은 그날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

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그날, 이 세상에 교회의 탄생이 시작된 것이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깨달음을 사도들에게 주시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바른 믿음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수많은 이단들의 위협을 물리쳤으며 그 일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언제나 함께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과 친교를 가지게 된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견진을 받아 성령의 은총을 받게 되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성령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 안에서 죄와 영적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언제나 필요하다. 성령과 더불어 영적 투쟁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 하느님을 더욱 알게 되고 가까이할 수 있다. 물론 영적 투쟁은 매우 힘들지만 그만큼 축복은 더욱더 크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노력할 때 겪는 영적 투쟁을 각자 감당할 만큼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영적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갈라디아 5,22)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아타나시아 봉사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삶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남과 대화를 나눌 때, 다음 사항들을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이 말할 때

1. 남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2. 남이 말할 때는 끈기 있게 들어 주십시오.
3. 상대방에 대해 미리 선입견을 갖지 마십시오.
4. 상대방이 실수를 하더라도 곧바로 지적하지 마십시오.
5. 상대방의 생각이 틀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꾸짖거나 나무라지 마십시오.
6. 상대방의 말을 자르면서 자꾸 끼어들지 마십시오.
7. 상대방의 말에 어떤 식으로 반론을 펴까 생각하면서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내가 말할 때

1.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말하십시오.
2.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3. 상대방이나 제 3자의 약점을 들춰내지 마십시오.
4.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이를 덮어줄 수 있는 명분을 찾아내십시오.
5. 내 자신이 원하는 주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바라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6.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신에 자신의 의견을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7. 의견이 다르더라도 따뜻한 눈길과 공손한 태도를 보이십시오.
8. 상대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골로사이 4,6)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 11일 축일을 맞이하신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건강하게 오래도록 정교회를 올바르게 이끄시어 주님의 양 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6월 13일(월) 오전 9시
성령 축일
축일 조과,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식

■ 오순절 기간 금식 해제

이번 주간은 오순절 축일 경축 기간으로 수, 금요일 금식을 해제합니다.

■ 주일학교 발표회

매주 토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열리는 주일학교 모임에서는 그동안 프리오디온 기간의 주일(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주일부터 부활절 주일까지)에 대해 배웠고, 학생들이 이 모든 주일을 외워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인천, 전주, 울산 성당에서 총 12명의 학생이 발표에 참가했고, 우수상은 인천의 한알렉세이 학생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합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후원 안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화 모금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060-700-0007(ARS)로 전화를 거시면 한 통화에 5천원을 기부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립니다.

성인의 가르침

성 요한 클리막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고통으로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하느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기뻐 웃는 것을 원하신다.

죄를 제거하면 눈물이 많아진다.

타락하기 전의 아담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후, 죄가 파괴된 후에는 눈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